
한국전쟁 전후 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의 배경과 그 양상

남 재우 | 창원대학교 사학과
allakuk@hanmail.net

I. 서론

이 글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54년 빨치산 토벌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남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상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¹⁾

함양군은 북쪽의 덕유산과 남쪽의 지리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한국

-
- 1) 본 연구는 다음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희생자 현황조사 용역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함양지역 조사에는 남재우(책임연구원), 김주완(연구원), 박영주·김동석·하정구·한양하(연구보조원), 천성주·김준순·정미란(보조원)이 참여하였다. 보고서 작성은 남재우, 김주완, 박영주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희생자 현황조사는 함양군의 1개읍 10개면, 256개 자연마을을 모두 방문하는 마을 전수조사와 마을 주민들을 면담하고 증언을 듣는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 창원대학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희생자 함양조사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2009).

전쟁 이전부터 빨치산의 거점이 되어온 지역이다. 이들에 대한 군경의 토벌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으며, 빨치산에 의한 우익인사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수동면 도북마을 32명과 죽산리 치라골 17명을 비롯, 안의·백전·서하·휴천·지곡면 등 1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군경토벌대에 의해 불법 처형된 것도 그 시기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부 좌익혐의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검속돼 학살당하기도 했으며, 인민군 점령시기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의 또는 타의로 의용군에 징발돼 희생당하거나 우익인사들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학살당했다.

인민군 후퇴시기에도 진주 등 서부경남 일대의 우익인사와 경찰, 공무원 등이 이곳 함양에서 학살당했으며, 수복 후에도 1954년까지 계속된 빨치산 활동과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잇따랐다.

1951년 2월 7일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함양군 휴천·유림면과 산청군 금서면에서 주민 705명을 학살한 '산청·함양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별도로 인민군이나 빨치산과 내통 또는 협력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학살된 민간인이 적지 않으며, 반대로 빨치산에 의해 반동 또는 밀고자로 지목돼 학살된 민간인들도 있었다.

이처럼 함양군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약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실상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희생자의 규모를 떠나 다양한 유형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 위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청·함양사건'과 최근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도북마을과 치라골 사건 외에는 그동안 연구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 외에는 유족회 조직이나 진상규명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근 '거창사건'과 동일 사건인 '산청·함양사건'의 명예회복 과정에서 좌익사상과의 무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민'을 유난히 강조해온 탓인지, 좌익활동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불법 처형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예 진상규명 요구는 물론 그 필요성조차 제기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를 지배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향토사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2006년 함양군과 함양문화원에서 편찬된 『간추린 함양역사』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의 향토사는 아예 서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함양군이 발간한 『함양군지』 또한 군경의 ‘공비토벌사’와 빨치산의 악행만 강조하고 있을 뿐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해방공간의 현대사와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익히 알려진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함양지역의 민간인 희생에 관련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60년 국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09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남아있다.²⁾ 최근에도 진실화해위원회 제6차보고서에서 86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이 밝혀졌다.³⁾ 또한 지방지에 민간인 희생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다.⁴⁾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연구자에 의한 함양지역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함양지역 현대사를 재구성하고, 해방이후부터 빨치산 토벌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민간인 희생⁶⁾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2) 咸陽郡, 『단기 四二九三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査 書類綴』, (1960).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함양민간인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3 제6차보고서, (2009).

4) 함양군지편찬위원회, 『함양군지』, (1991).

마천에향회, 『마천향토지』, (1994).

휴천면지편찬위원회, 『휴천면지』, (2000).

5) 개인연구자에 의해 함양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간략하게 언급되기는 했다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서울: 역사비평사, 2004)).

6) 희생이란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의 ‘희생’이란 의미는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을 잃거나,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만을 한정짓고자 한다.

II. 한국전쟁전후 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의 사회적 배경

1. 해방이후

함양지역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식민지시기 동안 다양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어 왔던 지역이다.⁷⁾ 해방 후 함양지역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았다. 해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고,⁸⁾ 그 중에는 일본으로 유학 갔던 청장년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함양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일제 식민지시대 말기에 징병, 징용, 학병을 희생서 산으로 숨어들어가 무장단체를 조직했던 하준수도 함양으로 내려왔다.⁹⁾

1)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7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경상남도지부’가 결성되었다. 경남 건준의 지도부는 일제하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자와 3·1 운동, 의열단, 신간회에 가담했던 민족주의자, 건국동맹에서 활동한 인사, 그리고 지역의 명망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중앙 건준과 마찬가지로

-
-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34~40쪽.
 - 8) 해방이후 함양지역의 인구도 증가했다. 1932년 함양의 인구가 조선인만 76,401명이었는데(『부산일보』 1932.4.15), 해방이후인 1949년에는 102,184명이었다(『함양군지』, 162쪽). 1944년과 1946년 사이에 함양인구가 20%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다(브루스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일월서각, 2008), 547쪽).
 - 9) 하준수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잡지 『신천지』에 「신판 임격정」이라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기고했다. ‘학병 거부자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글이었다. 일제 식민지시대 말기 징병, 징용, 학병을 희생서 산으로 숨어들어간 사람들이 반일무장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는 경위를 생생하게 재현한 기록이었다. 이글에는 일본 유학생 하준수가 입산자들을 규합하여 普光黨이라는 항일단체를 결성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있다. 뒷날 소설가 이병주가 쓴 유명한 대하소설 『지리산』의 모티브도 바로 이 기록에서 나왔다(임경석,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서울: 역사비평사, 2008), 232쪽).

가지로 민족반역자와 친일파를 제외한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조직체였다.¹⁰⁾ 건준 도지부는 건국사업에 필요한 도내 각지의 정세조사와 연락을 목적으로 조사대를 편성하여 9월 22일 각 담당지역으로 파견했다. 함양은 거창, 산청 등과 함께 제2조사대에 포함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경남각지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건준 지도부와 중앙 건준 조직부의 독려를 받고 도내 각 시·군·면을 단위로 건준과 치안대를 조직하게 되었다.¹¹⁾ 따라서 함양군에서도 이 시기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함양지역에서 건준에 참여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방이 되면서 귀환한 민족개혁 세력들이 함양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리산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하준수가 함양으로 오면서 청장년들이 하준수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항일독립운동가이며 여운형의 친구인 양지환¹²⁾이었다.

하준수를 비롯한 민족세력들이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군청과 경찰서를 수중에 넣는 것이었다. 노가원이 지은 『남도부』는 함양경찰서 접수작전에 참가했던 이성수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 밤에 함양경찰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함양경찰서에는 왜경들이 3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하준수가 50여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가서 접수했지요. 불의의 습격이었어요. 그때 하준수는 총을 3~4정 갖고 있었어요.”¹³⁾

해방직후 중앙에서는 여운형에 의해 조건건국준비위원회가 들어서

10) 신중대, 「해방직후 부산·경남지방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경남편』, (서울: 여강, 1993), 206쪽.

11) 신중대, 위의 논문, 209쪽.

12) 양지환은 함양청년회 위원장, 신간회 함양지회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앞의 보고서, 35~41쪽). 그리고 박헌영과도 교우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975쪽).

13) 노가원, 『남도부』 상, (서울: 월간 말, 1993), 42쪽.

고 건준 산하 치안대가 조직되어 비록 잠시 동안 경찰서를 접수하게 되지만, 하준수의 경찰서와 군청 접수는 그보다 앞서 독자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경찰서와 군청등 행정기관을 접수한 하준수와 그의 동지들은 일제경찰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곧 치안확보에 들어갔다. 하준수는 군수와 경찰서장 등 각 행정기관의 간부들을 구하기 위해 포고령을 내렸다.

이에 양지환 군수, 박병구 경찰서장, 하갑수가 부서장이 되었다. 양지환은 하준수가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박병구는 일본대학 출신(하준수의 선배)으로 하준수가 패관산에서 보광당을 조직, 함양경찰서를 습격할 무렵 백전면에서 야학을 하고 있던 선생이었으며, 민족개혁주의자였다. 하갑수는 일본유학시절 이래 하준수의 브레인 역을 맡아오던 인물이었다.¹⁴⁾

민선군수와 경찰서장은 자주 바뀌었는데 이종현씨의 증언에 의하면 초대서장에 박병구, 2대 오재화, 3대 하갑수였고, 하준수의 동생 하백수와 함양초등학교 동기생인 하종위씨의 증언에 의하면 함양경찰서장 박병구에 이어 인민공화국 때에는 하갑수였으며, 하종욱이란 사람도 경찰간부로 활동했다고 한다.¹⁵⁾

함양지역에도 건준이 있었다. 하준수와 다른 세력이었지만 얼마 안되어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 당시 건준은 함양의 지주이자 민족주의자였던 하준수의 장인 이민종을 건준 함양위원장에 추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민종이 고사함에 따라 민선군수 양지환이 위원장이 되었다.¹⁶⁾

2) 인민위원회

건준이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인민공화국으로

14) 노가원, 『남도부』 상, 45쪽.

15) 『함양군지』에 의하면 1946년 이전에 함양군수는 확인되지 않으며, 1950년 11월 이전에 함양경찰서장의 명단이 나오지만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찾을 수 없다. 『함양군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미군정이 진주하고 난 뒤 임명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16) 노가원, 『남도부』 상, 48쪽.

해소되면서 지방건준지부도 점차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조직을 축성시키고자 중앙위원을 파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경남에서는 건준 해소와 인공수립이라는 전국적 추세에 부응하여 10월 5일, 도내 각 시군의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 242명과 지도부 위원으로 구성된 건준 경남대표자대회를 부산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경남도인민위원회가 탄생하자 경남의 각 지역에서도 속속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0월 한달 동안 통영, 창원, 김해, 하동, 양산, 함천 등의 군과 그 밖의 읍과 면에서 통제력을 장악해 나갔다. 경남은 인민위원회의 세력과 급진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남해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 존재했으며 5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한때나마 지배하였다. 함양군도 인민위원회가 통치권을 장악한 지역이었다.¹⁷⁾

10월초 미군은 대부분의 군에 진주하였는데 인민위원회들이 거의 모든 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남에 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지주나 전직관리가 인민위원회를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함양에서는 전수하(하준수의 오기)가 지도하는 이른바 ‘귀환 학병들’이 군 행정을 담당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복역하는 대신 1944년에 인근의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양에 돌아와 그곳의 한인 경찰관과 총독부의 한인 관리들을 체포하고 군청을 접수하였다.¹⁸⁾

하지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함양지역의 인민위원장은 박병두¹⁹⁾, 중앙인민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 대표자는 박병두, 이종택²⁰⁾,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1945년 12월 8-10일) 대의원은 강석주, 하기재, 정병훈²¹⁾이었다.

17) 브루스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399쪽.

18) 브루스커밍스, 위의 책, 403쪽.

19) 신종대, 『해방직후 부산·경남지방의 변혁운동』, 241쪽.

20) 김남식, 『남로당연구』 III, (서울: 돌베개, 1984), 137쪽.

21) 김남식, 위의 책, 145쪽.

3) 미군정의 활동

미군정부대는 1945년 10월초 대부분의 군에 진주하였다.²²⁾ 98군정대는 부산에 본부를 설치하였고, 57중대는 마산에 본부를 두고, 마산, 통영, 고성, 창녕, 함안, 창원군, 그리고 58,70중대는 본부를 진주시에 두고 합동으로 진주, 남해, 사천, 하동, 진양,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을 관할하였다. 경남지역주둔군 사령관인 해리스 준장이 9월 29일 군정경남지사로, 10월 26일 해리스령은 군정부산시장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정은 미군과 도청직원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10월 6일부터 1주일간 일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해리스준장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각 지방관리와 직원은 현직에서 그대로 잔류하도록 포고하였다. 제1지도반 진주,진양,산청,함양,거창이었으며, 담당자는 김종규, 김창식이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탄압하는 동시에 대부분 일제하의 관리를 지냈던 자들을 다시 각 군의 군수에 임명한 다음, 대중적 지지가 결여된 군정지사의 고문회의를 설치했다. 이 고문회의에서 좌익성향의 인사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대다수를 보수우파가 차지하게 되었다. 즉 미군정은 일제하의 한인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유지·복구시킨 다음에는 고문회의를 설치하여 대중적 기반이 결여된 한민당 및 우익인사를 후원함으로써 좌익세력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자 했다. 24명으로 구성된 경남군정청의 경남도고문회의에는 함양지역의 경우 양지환이 임명되었다.²³⁾ 고문회의의 인사들은 거의가 보수우익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25일에 함양군수로 임종국(울산산업과정역임)을 임명하였다.²⁴⁾ 46년 8월에는 도입시고문으로 함양지역에는 강지준이 임

22) 브루스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403쪽.

23) 김남식, 『남도당연구』 III, 254쪽 ; 『민주중보』 1945.12.6. 양지환은 하준수가 존경한 인물인데 보수우익으로 구성된 고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다만 미군정과 함양지역 인민위원회 사이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 있는데(노가원, 『남도부』 상, 63~74쪽),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24) 신중대, 『해방직후 부산·경남지방의 변혁운동』, 246쪽. 임종국의 재임기간은 46년 4월 30일부터 46년11월29일이었다(『함양군지』, 82쪽).

명되기도 했다.²⁵⁾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민위원회도 군정부대의 진주가 거의 완결되면서 막강한 물리력을 동반한 미군정·경찰의 조직적 탄압아래 차차 각개격파 당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인민위원장 윤일의 194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인민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 경상남도 정세보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10월5일 도인민위원회 결성후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모략적 역선전으로 인하여 20군 3시 중 20군의 행정기관을 접수하였던 것을, 미군정이 탄압책을 쓰기 시작하여 김해, 협천, 양산, 울산, 거창, 함양, 산청의 7군에서는 동지 약50명이 미군현에 검속되었으며 양산, 김해에서는 미군의 명령으로 인민위원회가 해산을 당하였고 통영에서는 미군과 민중이 충돌하여 미국의 발포로 1명 즉사, 약 3백명의 검속을 보았다.

4) 함양지역 보수청년조직의 활동²⁷⁾

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국청) 함양지부가 1946년 11월 23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함양지부가 결성되고 그 산하에 청년부를 두어 군 산하 12개면, 1읍에 읍·면단부를 조직하여 약 1000명의 단부를 포용하게 되었다. 청년부에서는 이미 좌익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상계도와 선도에 주력하여 반공사상에 일차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함양청년회에서는 반공사상에 투철한 단원 50명을 특공대로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합숙훈련을 거친 다음 경찰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서 정보제공·지리안내 등을 맡았다.²⁸⁾ 국청계 의원 김경도가 함양의 제헌국회의원이 되었다.²⁹⁾

한국광복청년회의 함양군 지회가 특공대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25) 『민주중보』, 1946. 8. 3.

26) 김남식, 『남로당연구』 III, 84쪽.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28)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위의 책, 975쪽.

29) 『함양군지』, 59쪽.

했으며, 대한민족청년단은의 함양군단장은 임학래, 부단장 임정우, 조 직부장 윤재기, 훈련부장 박삼윤이었다. 서북청년회 함양군지부 위원 장은 박기봉이었다. 대동청년단 함양군 단부 단장 김석봉, 부단장 서 상교·하종열, 총무 김형석 기타 유원문, 도성환, 정태현이었다. 대 한청년단 함양군 대표는 유원문, 도성환, 서상교이었다. 해방후 전국 각 지방의 청년운동지도자로서 청년단 간부명단에 오르지 않은 사람 으로 함양군 김명섭, 김형석, 장석희이 보인다.³⁰⁾ 1948년 11월 함양 민보단 결성³¹⁾되기도 했다. 11월 30일 劉在京³²⁾경찰서장이 민보단 결성식에서 훈시를 하였다.

5) 보수와 좌익의 갈등

함양지역에서도 해방공간에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좌우충돌이 일어났다. 함양읍 함양시장 에서 별도로 3·1절 행사를 끝낸 좌익계 군중 5000여명은 해산하면서 우익의 국민회와 광복청년회관을 습격·파괴하는 것을 광청특공대 원이 이를 막아 격퇴시키면서 좌익주모자 3명을 체포해서 경찰에 인 계했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12명도 큰 부상을 당하여 경 남의원에 평균 10일간 입원치료했다.³³⁾

다음은 반탁시위 과정에서의 충돌이었다. 1947년 5월 15일에 함양 군에서도 반탁운동을 전개하여 시가행진을 하였다. 좌익들은 투석과 곤봉으로 시위행진을 방해했지만 광청대원들은 이들과 싸우면서 예정 한 코스를 따라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서 신탁통치반대의 격렬한 시 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위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가능한 지역의 총선 으로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귀국한 뒤였고, 또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시기였기에 반탁운동을 우익진영에서는

30)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504쪽.

31) 『부산일보』, 1948. 2. 4.

32) 『함양군지』에 의하면 유재경은 1950년 11월 이전 함양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33)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975쪽.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그런데 함양에서 경찰이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김석봉·민치훅·임봉태 3명을 군정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10일간을 구류시켰다.³⁴⁾

좌익들의 모스크바 3상회의지지 집회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좌익들은 1947년 7월 27일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군중대회를 함양 상림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의 대회에는 인근에서 군중을 동원하여 1만여 명이 모였다. 이에 광청지회 특공대 50여명이 군중 속에 잠입하여 연단의 마이크를 고무총으로 쏘아 파괴하였고, 군중속에서 교란작전으로 행사를 방해하였고, 경찰의 행사저지로 좌익들은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북청년회 등의 우익청년들이 하준수 일행을 테러한 사건도 벌어졌다.

‘무조건하고 난타 함양·안의에 또 『테로』 천인공노할 테로사건’ “8월 4일 하오두시 거주 하준수의 5명이 ○○상의 30명(獨立勞農黨·西北青年會)이 전기(前記) 하준수 일행에게 곤봉·일본도·석괴(石塊) 등으로 무조건 난타하여 이칠성(李七星)·이장우(李章雨)·강만중(姜萬中)·정병훈(鄭炳薰) 등 4명을 혼도(昏倒), 하준수는 물에 빠져 두부(頭部)에 중상, 김용수(金龍洙;25)는 곤봉으로 난타당하여 기절, ³⁵⁾

6) 전쟁전 함양지역의 빨치산활동

① 여순사건과 빨치산활동

1948년에 들어와 미국과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추진하자,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투쟁이 남한 전역에서 벌어졌다. 특히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사건 이후에는 주로 오대산·태백산지구와 지리산지구에서 무장유격투쟁이 전개되었다.

1948년 10월 20일 여순사건이 실패하자 이에 반란군 1000여명이 지리산, 백운산으로 도피·입산하였다. 여순사건의 주모자인 김지회, 홍순석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은 유격근거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지리산을 중심으로 덕유산, 백운산 일원에 분산 은거시켜 장기

34)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975~976쪽.

35) 『민주중보』, 1947. 8. 12.

항진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갔다. 이들은 준비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구례, 곡성, 광양, 무주, 장수, 남원, 거창, 함양, 산청, 함양, 진주, 하동 등지에서 활약했다.

함양지서에 지리산 폭도 내습 : 제7관구 경찰청발표에 의하면 12월 19일 정규군 가장한 지리산 도피 반도(叛徒) 30여명이 함양군 마천지서 내습하여 경비중인 다수 경관을 죽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집무중인 경사와 순경 등 4명을 사살하였다.(『조선일보』, 1948. 12. 22)

한국전쟁 전 함양지역의 빨치산 활동에 대해 『함양군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49년 1월에는 서하면 봉전리에 반란군 공비가 나타나서 봉전초등학교 교사와 당시의 서하면 부면장을 쌍발엽총으로 발사하여 총상을 입히고 금품을 탈취한 만행이 있던 후부터 차츰 각 부락에 출몰하는 빈도가 잦고 그 수법도 악랄하여 모부락에서는 피신해 있다가 부모제사 모시려고 집에 돌아온 우익계 인사를 부엌칼로 찌르고 팔을 묶어 장작불로 그을려서 죽이기까지 했다...1949년 3월에는 여순사건의 두목인 김지회(金智會), 홍순석(洪淳錫)이 지휘하는 500여명의 지리산 공비는 덕유산으로 이동하여 거창일대에 만행을 저질렀다...1949년 10월에 들어와 국군은 대소탕작전을 실시하여 백운산, 장안산, 덕유산, 백아산, 회문산, 입암산 등지에 주로 접촉가능성이 많은 민간인을 공비와 격리시켜 선무공작을 실시하였더니 거점을 상실한 반란군을 격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② 하준수의 빨치산 활동

하준수를 주축으로 한 빨치산의 활동 역시 노가원의 기록문학 『남도부』³⁶⁾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하준수가 경찰들과의 갈등 속에서 재입산한 것은 1946년 여름이었다. 하준수와 그의 동지들이 찾아가던 곳은 일제시절 하준수가 가장 먼저 입산했던 덕유산 은신골이었다.

하준수는 1947년의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통한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7·27인민대회를 주도했다. 함양지역에서의 2·7함양투

36) 노가원, 『남도부』 상, 135~204쪽.

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제시절부터 사회주의운동을 해온 이들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해방후 친일경찰들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지리산으로 쫓겨온 해방공간의 비극의 ‘희생양’들이었다고 한다. 하준수는 지리산 천왕봉에 지휘본부를 두고 아직 경찰의 감시망에 들지 않은 당원들을 내려보내며 2·7구국투쟁을 진두지휘했다.

48년 2월 7일 천왕봉에 쌓아둔 달집을 태운 봉화를 신호로 구국투쟁은 시작되었다. 함양군 곳곳에 전기가 두절되었고 교량이 폭파되었다. 당원들 중 일부는 복수심에 불타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인 서청, 대청원들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준수가 주도한 함양2·7구국투쟁의 규모와 전과는 알 수가 없다. 2·7구국투쟁으로 함양지역은 우익청년단체인 대청, 서청 등의 ‘폭압적인 활동’으로 좌익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희생을 많이 입게 되었다. 이러한 폭력행위 때문에, 군정경찰과 우익청년단체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청년들은 날이 갈수록 하준수를 찾아 지리산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하준수의 이러한 빨치산 활동은 “그의 본명은 하준수로 진주중학을 거쳐 일본의 중앙대학 법학부 3년 중퇴, 학병을 피하여 지리산에 입산했었다. 해방뒤 건준위원과 공산당간부로 있었다.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고...”³⁷⁾라는 것을 볼 때 남로당과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천왕봉 무장봉기로서 남한지역에서 실시된 5·10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5·10천왕봉무장봉기는 거사를 사흘 앞둔 5월7일, 토벌대가 몰려왔으므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5월 7일 천왕봉무장봉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천왕봉 무장봉기의 실패, 5·10총선거 이후 하준수의 빨치산 활동은 더욱 적극적이었다. 통일정부수립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겠다는 분단현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친일경찰, 민족반역자 징벌에 나선 하준수부대의 경찰서 습격은 거침없었다고 한다. 신문기록 속에서도

37) 김남식, 『남로당연구』 III.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사는 많이 찾을 수 있다.³⁸⁾

7)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14연대 반란군들은 1948년 말부터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함양군의 관공서를 공격하는 등 본격적인 빨치산 활동을 했다. 군경의 작전목표는 지리산 산간부락의 소개를 통해 빨치산의 거점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토벌작전에 나선 군경은 빨치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빨치산의 보급활동 차단과 민간인들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경은 작전지역이던 함양군의 산간마을을 소개하거나 통비분자 색출의 명분으로 마을 주민들을 연행, 취조하여 빨치산과 협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적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 함양군에서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마을은 함양군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며, 국군·경찰의 치안유지가 취약한 곳에서 일어났다.

“기자는 (전북)남원군과 (경남)함양군에서 소개실태를 조사하였다. 전 기 양군에 있어서 이미 소개된 호수는 각기○○호에 소개인구는 ○○명에 달한다…이것은 지난 7월경부터 시작되었는데 …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소개민들이 산에서 찍어온 몽글나무를 엮어올려 간단한 움집을 짓고 있었다. 명년 봄이 되면 다시 살던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을 유일한 희망으로…”(『동아일보』 1949.10.24)

산간마을 소개는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는 195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소개작전은 당시에든 문제가 되어 제5회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중지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³⁹⁾

여순사건을 주도했던 김지회, 홍순석이 350여명과 함께 지리산으로 도주하자 국군에 의한 빨치산 토벌작전이 개시되었다.⁴⁰⁾ 빨치산들은

38)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59~61쪽.

39) 『동아일보』 1949. 10. 24.

40) 다음을 참고하였다.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중공군개입과 새로운 전쟁, (서울: 행림출판, 1992), 332~336쪽.

유격근거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지리산을 중심으로 덕유산, 백운산 일원에 분산 은거시켜 장기 항전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갔다. 이들은 준비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구례, 곡성, 광양, 무주, 장수, 남원, 거창, 함양, 산청, 함양, 진주, 하동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 전투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였다. 한달간 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48년 11월 30일 해체하였다.

호남방면 전투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토벌대가 일부 철수하자, 지리산 지역의 빨치산들은 이전의 활동범위였던 구례·하동일대에서 벗어나 전남·전북의 동부지역과 경남 북서부인 산청·함양·거창군 그리고 진주 부근까지 행동반경을 확대했다.

1949년 3월 1일에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로 개편하였다. 지리산 빨치산들은 전투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토벌부대가 일부 철수하자 그들의 활동범위였던 구례, 하동 일대에서 벗어나 전남·전북의 동부지역인 광양, 곡성, 남원, 장수, 무주군과 경남·경북의 서부지역인 산청, 함양, 거창군, 그리고 진주 부근까지 행동반경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지리산 전투사령관 정일권 준장은 남원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3연대(남원) 3대대, 5연대(부산) 1개 대대, 9연대(서울) 1개 대대, 19연대(대전)의 1개 대대 제1독립대대 등 5개 대대를 두었다.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도 광주에 주둔 5여단장 원용덕 준장이 사령관을 맡고 예하에 20연대(광주)의 3개 대대, 15연대(여수)의 1개 대대, 3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받아 대체로 섬진강의 오른쪽은 지리산전투사가 왼쪽은 호남전투사가 맡았다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의 작전은 3단계로 작전이 수행되었다. 1단계는 남원, 구례, 화개장, 하동, 진주, 산청지역에 분산배치, 1주일간에 걸쳐 수색작전 전개하여 공비들을 지리산으로 쫓아 올렸다. 2단계는 야산지대에 산재한 빨치산을 지리산으로 몰아넣은 다음 이들을 격멸한다는 작전으로 3월 11일부터 개시하였다. 3단계는 3월16일부터

거창, 함양 등지로 도주한 빨치산을 색출, 소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과는 미흡했다. 이후 덕유산 포위작전과 패관산 전투가 벌어졌다. 3월 29일 밤 주민으로부터 안의 근방에 빨치산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받고 3연대 3대대가 출동하여 90여명을 사살하였다. 빨치산이 패관산(지리산과 덕유산 중간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3연대 3대대를 이동, 패관산에서 지리산으로 연결된 통로의 길목인 운봉면 피바위 고개를 차단하였다. 4월 4일 토벌부대들은 포위망을 압축 100여명의 공비를 강타하였다. 다음날에도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공비들에게 상당한 희생을 입혔다. 빨치산들은 이후 소규모 병력으로 흩어져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다. 이 전투에서 3연대가 여순사건의 주모자인 김지회, 홍순석을 사살했다.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임명되어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다 1949년 5월 9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토벌부대는 원대복귀했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 전투부대가 철수하자 분산된 빨치산들은 병력을 재집결시키고 병력보충을 기도하다가 이현상을 파견 제2병단을 편성하여 한층 격화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백일 대령(제5사단장)을 임명했다. 치안국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를 남원에 설치하고 전투경찰대장으로 최치환 총경을 임명,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10월30일부터 1950년 2월 28일까지 민심수습, 사상 선도, 농촌재건 촉진, 원호사업을 병행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2. 한국전쟁시기

이미 서술했듯이 함양은 1950년 6월 25일 이전에도 이미 전쟁 상태였다.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이 덕유산과 지리산에 입산, 군경과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함양은 1953년 휴전 이후에도 가장 오랜 전쟁을 치른 곳이었다. 빨치산 토벌이 거의 마무리되는 1954

년까지도 함양군은 전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함양군민에게 한국전쟁은 가히 ‘7년 전쟁’⁴¹⁾이라 할 만 하다.

함양군민들은 인민군이 각기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날짜를 기점으로 ‘사변 전(前)’과 ‘사변 후(後)’를 구분해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억하는 날짜는 1950년 7월 26일~7월 29일 사이였다. 각기 날짜가 다른 것은 함양군내에서도 인민군이 진격해 들어온 날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함양군에 처음 인민군이 들어온 것은 1950년 7월 26일~27일, 부대는 인민군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이었다. 『휴천면지』는 인민군이 함양군 휴천면에 들어온 날을 7월 25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⁴²⁾ 하지만 『함양군지』는 육십령을 넘어 서상면으로 들어온 인민군이 ‘괴뢰 7사단’이었다고 명기하고 있다.⁴³⁾

그러나 『함양군지』의 ‘괴뢰 7사단’과 『휴천면지』의 ‘7월 25일’은 착오로 보인다. 모든 공식 기록에서 인민군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 소장)은 8월 중순에야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고,⁴⁴⁾ 실제 함양에 들어온 인민군은 제4사단이었고, 26일 전북 장수군에 도착, 27일 새벽에야 육십령을 넘었다.

함양으로 인민군이 진입한 것은 27일 아침으로 추정되며,⁴⁵⁾ 4사단이 금산과 무주를 거쳐 7월 27일 거창 방면으로 진격하였다.⁴⁶⁾ 즉 4사단의 진로는 금산(錦山), 안의(安義), 거창(居昌), 진주를 거쳐 마산(馬山)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으며, 7월 27일 아침에는 육십령(六十嶺·

41) ‘15년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이 3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천을 포함한 지리산 일대의 산골주민들에게는 여순사건부터 1963년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이가 불잡힐 때까지 15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마천애향회, 『마천향토지』, (1994), 56쪽).

42) 휴천면지편찬위원회, 『휴천면지』, (2000), 84쪽.

43) 『함양군지』, 152쪽.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45쪽, 52쪽.

45) 재향경우회 경상남도지부, 『경남경우45년사』, (1993), 670쪽.

46) 박기련, 『북한군의 기갑부대 운용』,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8쪽.

장계리 동쪽 6km) 고개를 넘었고, 7월 27일에는 안의를 점령하였다⁴⁷⁾는 것이다. 이렇게 함양에 진격한 인민군은 29일까지 함양군 전역을 점령했고, 31일에는 전남 전주와 여수를 거쳐 경남 하동에서 진격해온 인민군 6사단이 진주까지 함락했다.

1) 인민군 점령시기의 함양

인민군의 함양 점령기간은 대략 2개월이었다. 9월 28일까지 국군의 함양 수복이 이뤄질 때까지 2개월간 함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함양군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사실 함양은 여순반란 이후 공비와 싸워왔고 이제 그 공비도 거의 섬멸되려는 단계에서 남침전란으로 함양 전체가 완전히 그들의 치하에 들게 되었으니 보복행위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연일 피란민의 장사진이 우왕좌왕을 이루었고 수복 시까지 2개월간의 적 치하에 격은 고난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안의에서 서상을 넘어오는 적을 막으려고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은 퇴로를 잃고 전멸했으며, 탱크 몇 대가 안의국민학교 교정에 버려둔 채 전선은 남으로 확대되어 가고 소위 빨치산부대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치안을 담당하고 선무와 포섭의 위장전술로 피신중인 공무원과 우익인사 및 유지를 회유하여 협조를 강요하고 자수하라고 협박을 일삼았으며 일부인사는 경찰서에 유치하여 처형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낙동강 전선이 교착되자 초조한 피로들의 만행은 날로 심했다. 멋모르고 추종한 자는 당달아 날뛰며 사감을 공분으로 선동하여 괴롭히고 내무서(경찰서) 치안대(면지서)로 불법연행이나 체포를 일삼아 불안감만 조성시켰다. 또 잔류하고 있는 교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백전으로 결집시켜 세뇌교육을 시도하기도 했다.

47)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41쪽. 연구자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강희근은 “7월 27일 북한군 제4사단 일부가 함양을 통해 우명리로 압력을 가하는 일방 그 주력은 안의에 있는 아군의 퇴로를 차단 공격했다”(『산청·함양사건의 전말(顛末)과 명예회복』,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회, (2004), 77~78쪽) 김경현도 “호남에서 경남으로 진격한 인민군 4사단 가운데 일부 병력은 서부경남으로 남하하여 ‘함양→안의→산청→진주’ 방면으로 향했다”(『민중과 전쟁기억-1950년 진주』, (서울:선인, 2007), 98쪽)고 말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벌어진 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빨치산의 하산, 군과 읍·면 그리고 리 단위까지 인민위원회 결성, 사상교육,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따른 토지개혁, 현물세 징수, 의용군 할당 모집, 인민재판과 우익인사 학살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초기에 들어온 인민군은 주민에게 전혀 희생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⁴⁸⁾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은 가장 먼저 군과 읍·면, 리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주에서 9월 3일발로 인민위원회 선거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해방된 경남도 하동을 비롯해 함양·산청·거창·합천·진양·사천·의령·고성·남해 10개 군의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는 지난 1일까지 승리적으로 완료하였다.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으로는 과거 항상 인민의 선두에서 리승만 도당들과 투쟁한 애국인사들이 다수 선출되었다”⁴⁹⁾고 보도하고 있다.

현물세 징수를 위해 곡식 낱알과 콩잎까지 세웠다는 기억은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의용군 모집과 지원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조금씩 달랐다. 마을에 따라 대부분 자발적으로 의용군이 입대한 곳도 있었던 반면 마을에 할당된 인원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해 입대하도록 한 마을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소유 농지가 없이 머슴살이를 하던 무산자들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한 자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 또는 제비뽑기로 선정되어 타의로 입대한 자들은 9월 말 인민군 퇴각 시기에 탈출해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돌아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지에서 모집한 의용군에 대한 감시는 그다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물세 징수에 대한 반응도 사람마다 제각기 기억이 달랐다. 남의 눈을 소작하던 사람들은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 50%에 비하면 30%만 내면 되는 현물세가 그다지 가혹하지 않은 것으로

48)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66~67쪽.

49) 『조선인민보』, 1950. 9. 6 ;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1950년 진주』, 178쪽에서 재인용.

기억하고 있었고, 반대로 자작농이나 지주였던 이들은 반감이 심했다.⁵⁰⁾

토지개혁도 점령지 전역에서 이뤄졌는데, 8월 28일 인민공화국은 진주시를 비롯한 함양, 산청, 진양의 1시 3군에서 토지개혁을 완수했다고 밝혔다.⁵¹⁾ 인민군 점령 기간 인민재판에 의한 우익인사나 유지,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학살은 인민군 정규군이 아니라 대부분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이거나 지방좌익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후 9월 중·하순 퇴각하던 인민군이 수감 중이던 공무원과 경찰, 우익인사 등을 함양에서 집단학살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⁵²⁾

2) 인민군의 퇴각과 빨치산의 재편성

함양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다시 철수한 시기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이었고, 주력은 미25사단 35연대였다.⁵³⁾ 미2사단은 합천에서 거창과 함양 안의면을 거쳐 전주로 추격했다. 그러나 기동력과 화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미군의 작전 개념은 산악지대로 퇴각하는 적을 소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아⁵⁴⁾ 퇴각하던 인민군의 일부 병력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여 빨치산과 합세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⁵⁵⁾ 미군의 그런 작전 탓이었는지, 퇴각하던 인민군 6사단과 7사단 병력 중 상당수가 지리산과 덕유산 등지에 입산해 기존의 빨치산과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리산지구의 경우 제6사단과 제7사단 병력

50)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68쪽.

51) 『조선인민보』, 1950. 9. 7;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1950년 진주』, 183쪽에서 재인용

52)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68쪽.

5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서울: 행림출판, 1992), 149쪽.

54) 전쟁기념사업회, 위의 책, 145쪽.

55) 전쟁기념사업회, 위의 책, 149쪽.

2,500여 명과 지방공산잔당 500여 명이 합세하여 지리산·백운산에 들어갔으며 덕유산·가야산·속리산·대둔산·서대산 일대에도 적의 3개 집단이 유격전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⁵⁶⁾

빨치산의 입장에서 쓴 기록도 대개 이와 비슷하다. 1950년 11월말 경 유격대는 한국전쟁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5천여명 정도였다고 한다.⁵⁷⁾ 이현상이 이끄는 남부군(제2병단)은 650명으로 편제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⁵⁸⁾

그러나 아군측은 남부군의 병력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1년 1월말 현재 호남지구의 빨치산 유격대 규모를 “무장공비 7,000명, 비무장공비 5,500명으로 합계 12,500명이 박격포 23문, 기관포 9문, 중기 28정, 경기 64정”⁵⁹⁾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760명정도로 파악되기도 한다.⁶⁰⁾

어쨌든 인민군은 함양을 비롯한 경남에서 퇴각했지만, 유격대로 잔류한 패잔병과 기존 빨치산으로 인해 ‘산간벽촌과 군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소재지까지도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지역이 허다’하였다. 함양군민으로서는 한국전쟁 이전의 제1차 전쟁에 이어 한국전쟁으로 인한 제2차 전쟁을 겪었고, 이제 9·28 수복 이후 또다시 제3차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것이다.

3) 군경의 빨치산 토벌과정

인민군의 퇴각에 즈음해 내무부장관은 1950년 9월 26일 치안회복에 관한 포고령을 선포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10월초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호남지역에 투입해 빨치산 토벌임무를 맡도록 했다. 11사단은 곧이어 10월 15일 후방지역 작전을 담당하게 되는 3군단에 배속되어 호남지역과 함양·산청 등 서북

56) 전쟁기념사업회, 위의 책, 150~151쪽.

57) 이태, 『남부군』(재편집증보판), (서울: 두레, 2003), 275~276쪽.

58) 이태, 위의 책, 280쪽.

5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342쪽

6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281쪽;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342쪽에서 재인용

부 경남지역의 빨치산 토벌을 계속하게 된다.

11사단은 1951년 3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지역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1951년 2월 7일~11일까지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 일원에서 705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른 부대다.⁶¹⁾ 11사단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 사건이 1951년 3월 29일 국회에서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빚자 4월 6일 8사단에 임무를 넘겨주고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후 8사단이 5월 11일까지 한 달 가량 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5월 19일 지역을 떠났다. 이에 따라 5월부터 11월까지는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김용배 준장) 예하 예비 3개 연대와 경찰 8개 부대가 토벌작전을 맡았다.

이 시기 빨치산은 수목이 우거지는 6월에 접어들면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투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었다. 1951년 8월 이현상은 6개 도당회의를 개최하고 각 병단을 개편하고 군사적으로 남한을 완전 장악할 것과 도당은 군사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총거점을 지리산으로 한다고 결정했다.⁶²⁾ 이와 달리 6개 도당회의 개최시기를 1951년 5월 하순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⁶³⁾

빨치산의 공세가 심해지자 1951년 11월 빨치산 토벌을 목적으로 다시 2개 사단을 편성, 지리산지구에 투입하는데,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8사단(사단장 최영희 준장)으로 구성된 ‘백야전 전투사령부(백야전사)(사령관 백선엽 소장)였다. 백야전사는 2개의 사단과 함께 서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토벌임무를 인수하고,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와 경찰부대를 예하에 배속했다.

백야전사의 병력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장교와 하사관 수만 200명이었고, 전체 병력은 3만여 명이나 됐다.⁶⁴⁾ 12월부터 그야말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벌어졌고, 1952년 3월 14일까지 3개월 보름간에

61) 강희근, 『산청·함양사건의 전말(顛末)과 명예회복』, 89쪽.

6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349~350쪽.

63) 이태, 『남부군』, 301~302쪽.

64)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지구촌, 1999), 230쪽.

걸친 토벌 끝에 빨치산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백야전사는 3월 14일까지 작전을 마치고 해체됐다.

그러다 다시 1952년 7월 10일 전방의 전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국군은 1사단(사단장 박임항 준장)을 전북 남원으로 이동시켜 8월 4일까지 약 20일간 지리산, 회문산, 장안산, 덕유산 등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였고, 이 중 15연대는 밀양으로 이동, 경남지구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일월산과 신불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병행했다. 이후 경찰과 분리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남경사)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1954년까지 빨치산 토벌을 계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1953년 9월 18일 지리산 빗점골에서 이현상이 사살되고, 11월 28일에는 산청군 지리산 상봉골에서 이영희가 대원 62명과 함께 사살, 궤멸되었다. 이것이 빨치산 부대와 마지막 교전기록이라고 한다.⁶⁵⁾

그러나 국군은 1953년 12월 5사단장 박병권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박 전투사령부’를 편성,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예하에 두고 1954년 5월 25일까지 166일간에 걸쳐 남은 빨치산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54년 1월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전임돼 있던 조병하(전 전북도당 부위원장)가 국군 5사단 토벌대에 의해 지리산 조개골에서 생포되면서 사실상 빨치산은 소멸되었다.

4)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민간인 전시동원

전쟁 시기 함양군민들은 불법 처형 못지않게 공비토벌 과정에서 의용경찰(특공대)로 참여해 많은 희생을 입었다. 향토방위대로 불리다 언제부터인지 특공대로 불리기 시작한 이들은 군인이나 경찰과 달리 명단은 물론 각종 통계에서도 누락돼 정확한 인원도 알 수 없다.

1951년 흥범회 내무부차관의 국회보고에 따르면 10월 현재 2만 9083명의 의용경찰이 있었고, 이는 정식 경찰관의 절반을 넘었고, 경남에서는 2만 1105명의 향토방위대 및 청년단이 보수도 없이 경찰

65) 이태, 『남부군』, 559쪽.

앞에 서서 전투에 참여하였다.⁶⁶⁾

함양군 마천면의 특공대만 해도 120~130명이나 되었는데, 비호대, 돌격대, 청룡대와 함께 1, 2, 3대대의 조직편대까지 갖추고 있었다.⁶⁷⁾ 마천면뿐 아니라 휴천면도 특공대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⁶⁸⁾ 함양군내 다른 면에서도 100명 이상의 의용경찰이 빨치산 토벌 작전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토방위대나 특공대가 경찰에 동원된 의용경찰이었다면, 대한청년단은 정치적 우익단체로서 준경찰조직이었다. 대한청년단은 당시 ‘한청’으로 불렸는데, 주로 주민들 중 좌익혐의자 또는 부역자를 색출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한청은 경찰의 사찰업무 보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에게 경찰 이상으로 공포의 존재였다. 심지어 지금도 당시를 경험했던 주민들은 한결같이 ‘경찰과 한청이 빨치산을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⁶⁹⁾ 대한청년단은 서북청년단과 함께 6·25 발발 이전부터 이승만 정권의 친위조직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공동으로 수많은 민간인학살에 관여한 우익단체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지방좌익과 빨치산의 표적이 되어 적지 않은 간부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Ⅲ.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1. 6·25 이전의 민간인 희생

1946년 ‘10월 인민항쟁’과 1947년 ‘7.27인민대회’, 1948년 ‘2.7구국투쟁’ 등 좌익계열의 투쟁을 계기로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한 좌익인

6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울: 역사비평사, 1999), 771쪽.

67) 마천애향회, 『마천향토지』, (1994), 58쪽. 특공대가 참여한 빨치산과의 교전에 대해서도 56~71쪽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68) 『휴천면지』, 95쪽.

69) 『마천향토지』, 67쪽.

사 학살이 줄을 이었다. 함양지역도 이 시기에 많은 좌익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곳곳에서 학살당했으며, 뚜렷한 증거 없이 좌익에 협력했다는 혐의만으로 학살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였으며, 집단학살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학살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경우 또한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과 우익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불법 학살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군인에 의한 집단학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 이후 반란군이 토벌군에 쫓겨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로 입산해 빨치산 투쟁을 벌이면서부터였다. 마천면의 경우 1948년 함양읍 상림에서 열렸던 7.27 인민대회에 참석했던 인사 10여 명이 그 때부터 좌익분자로 요시찰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후 좌익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있었는데 마천에서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⁷⁰⁾

이 시기에는 경찰과 우익단체 간부들이 빨치산에 의해 학살되는 사건도 끊임없이 벌어졌다. 여순반란군으로 구성된 빨치산에게 민간인이 희생된 첫 사례는 1948년 12월 19일 마천면소재지인 땅벌(당홍)마을에서 전매국(연초조합) 직원들이 학살된 것으로 전해진다.⁷¹⁾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경찰과 토벌군(3연대) 자신들이 빨치산에게 당한 것을 보복이라도 하듯 수없는 민간인들을 빨치산과 내통했거나 식량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집단학살하기 시작했다. 또한 빨치산의 보급투쟁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을 불태워버린 경우도 허다했다. 마천면과 휴천면에서 불탄 가옥만도 251호였다.⁷²⁾

또한 수동면 도북마을과 내산마을(치라골)에서도 1949년 9월 각각 32명과 17명을 학살했으며, 이들 마을 역시 불태웠다. 백전면 백운리

70) 『마천향토지』, 54쪽

71) 『마천향토지』, 52쪽.

72) 『마천향토지』, 53쪽.

신촌마을과 운산리 중기마을에서도 비슷한 시기 각각 9명과 12명이 경찰에 붙들려가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학살당했다. 지곡면 음지주암마을의 경우도 역시 1949년 9월 빨치산이 들어와 우익인사 강판익을 살해하고 면서기였던 강갑천과 김용구를 납치했다. 이튿날 경찰은 이 마을 청장년 30~40여 명을 모두 잡아가 취조한 끝에 남자 4명을 병곡면 개평마을 우르목 뒷산에서 학살했다. 함께 끌려간 여자 1명은 행방불명돼 시신도 찾지 못했다.⁷³⁾

이처럼 여순사건 반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군경의 학살은 마천·수동·백전·휴천·서하·지곡면 등 함양군 전역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마천향토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순폭동사건과 6.25 전쟁 중에 빨치산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주민들의 숫자보다 아군에게 죽음을 당한 주민들의 숫자가 많았다”면서 “당시는 이승만 정권에 찬동하지 않는 이들도 빨갱이로 매도했고 또한 확증도 없이 좌익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씌워 처형시킨 예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⁷⁴⁾

2. 보도연맹원 학살에 따른 민간인 희생

함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도연맹원 희생이 적은 편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1949년~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던 여순반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민간인을 빨치산과 내통 또는 부역한 혐의로 학살해버렸기 때문에 보도연맹 가입대상자 및 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 대상자가 타 지역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 함양에 인민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왔기 때문이었다. 전쟁 중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았던 마산이나 창원, 김해, 부산 등과 달리 함양은 전라도와 인접해있었던 지형적 이유로 경남에서 가장 빨리 인민군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에

7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77쪽. 한국전쟁이전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보고서 107~120쪽에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74) 『마천향토지』, 53쪽.

따라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거나 처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후퇴하느라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미처 처형을 하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다. 인민군에 점령당하지 않았던 타 지역의 보도연맹원 학살이 대부분 7월말이나 8월 중 벌어진 것을 보면 함양지역에 인민군이 빨리 진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함양의 예비검속은 약 2~3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1차는 비교적 좌익혐의가 뚜렷한 요시찰 인물이거나 좌익인사의 가족들이었다. 1차로 예비검속된 이들은 대부분 학살됐다. 함양읍 교산리 출신의 공무원이었던 좌익인사 권창현의 가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권씨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경찰에 쫓겨 피신하고 없는 상태에서 6·25가 발발하자 경찰은 그의 부친 권재성과 아내 한선이, 딸 권순희, 그리고 젓먹이 딸 등 4명을 수동면 본통고개에서 다른 좌익 관련 인사 수십명과 함께 학살당했다”고 한다.⁷⁵⁾ 그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둘째 아들 권순정(1942년생)씨는 그 뒤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1차 학살은 1950년 7월 20일경 본통고개와 함양읍 복골 등에서 이뤄졌다.⁷⁶⁾ 앞서서도 언급된 마천면 좌익혐의자 10여 명에 대한 학살 또한 개진 직후 1차 좌익혐의자 학살 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차, 3차로 소집된 시기는 이미 진격해오는 인민군을 맞아 아군과 경찰이 전투에 투입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집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서에 일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일단 소집되었다가 해산하라는 말을 듣고 해산하여 목숨을 건졌거나, 소집한 경찰이 사라져버려 학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평소 지역민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해당 지역 지서장과 순경들이 학살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살려준 경우도 있었다.⁷⁷⁾

75) 권재성의 손자인 권순정(66세)의 증언이다. 조사일시는 2008.10.1이다.

76)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127쪽.

77) 석북면(1957년 함양면과 합해져 함양읍이 됨)의 경우 보도연맹관련자의 희생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석북면의 보도연맹가입자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석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는데, 당시 국민회 회장으로서는 청년

3. 군경토벌과정의 민간인 희생

이미 잘 알려진 11사단(사단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오익경) 3대대(대대장 한동석)에 의해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유림면, 그리고 거창군 신원면에서 1424명의 민간인이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학살당한 ‘거창·함양·산청사건’이 전쟁 발발 이후 대표적인 군경토벌과정의 학살로 꼽힌다. 이 때 산청·함양의 희생자가 705명, 거창이 719명이다. 산청·함양은 1951년 2월 7일, 거창은 2월 9일~11일의 일이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진상이 거의 밝혀졌고, 법에 의해 위령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⁷⁸⁾

한국전쟁 발발 이후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앞의 11사단 9연대에 의한 학살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개별적인 학살은 많았다. 거창사건이 정치·사회적 물의를 빚자 1951년 4월 11사단이 8사단으로 교체된 후 집단학살은 거의 사라졌고, 특히 그해 11월 ‘백야전 전투사령부(백야전사)’가 투입되면서 무고한 학살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그 때 발생한 일부 개별적인 사례 또한 군인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오인 사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⁹⁾

운동을 하던 지역의 유지인 김영상이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인민군이 남원까지 와있는데 여기서 뭐하냐, 빨리 해산하라”는 식으로 종용해 모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학살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 일로 해서 김영상은 수많은 인명을 구한 공로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뇌산마을 입구에는 ‘국회의원 김영상선생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20~128쪽).

78) 강희근, 『산청·함양사건의 전말(顛末)과 명예회복』.

79) “6.25전쟁 당시 양수락마을에서 남의집살이를 하던 피해자 김○○은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밀고 올라갈 때 팔령고개 방면으로 올라가는 탱크를 앞세운 군부대 행렬을 보고 만세를 부르고 손을 흔들었는데 군인들이 적으로 오인하여 쏜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이상록(65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0.23).

그 때의 개별적인 희생은 인민군 점령 시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민 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역 혐의를 쓰고 총살된 사례,⁸⁰⁾ 산에 있는 밭에 일하러 가거나 나무를 하다가 빨치산으로 오인을 받아 사살된 사례⁸¹⁾, 그 외 빨치산과 협력했다는 오해를 받아 학살된 사례⁸²⁾

80) “하쌍바우는 빨치산이 마친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빨치산에 의해 억지로 원정마을 위원장을 떠맡았던 자로서, 1950년 동짓달 무렵 3연대 소속 군인들이 마친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빨갱이 부역자라는 혐의로 끌고가 용유담 아래 아랫나귀바위 밑에서 총살당했다.” (하재옥의 증언, 80세. 조사일지 2008. 11. 11).

81) “인민군이 후퇴하고 난 뒤인 1950년 11월 초, 당시 석복면 면서기로 있던 피해자 정중근은 원구마을 자신의 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있었는데, 마을로 들어온 경찰을 빨치산으로 오인해 도망가다가 자신의 집 옆 대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경찰도 피해자를 적으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정중근은 그 전에 경찰을 하다가 면서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정덕성(68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0.25)

82) “당시 대방마을에 살던 홍종석은 운산리 중기마을 중재에 있는 물레방아를 ‘보러’(방아 쪼으러) 갔다가 밤에 마을로 내려왔는데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 밤에 다니니까 빨치산에 연락하고 왔다고 하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 총살하고, 피해자의 집을 수색해서 ‘빨갱이 문서’가 나왔다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서는 자기들이 써서 조작한 것이었다.”(진대을(86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1.25).

“여순반란사건 이후 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여러차례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빨치산들에게 밥을 해주는 등 협조했다는 이유로 전투경찰 207부대가 신촌마을 주민 11명을 끌고 가 그중 9명(오정현, 최정옥, 최재일, 박관갑, 홍순용, 홍순철, 박춘옥, 최봉술, 이경연)을 함양읍 이은리 남산에서 집단학살하였다. 피해자 이경연은 당시 백운산의 영암사란 절의 주지였는데 빨치산들이 돈 5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돈을 꾸어다 주었는데 탄로가 나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난 며칠 뒤 잡혀가 학살당했다.”(오기현(89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1.25).

“함양금용조합에 근무하던 정재섭은 친목계 총무로도 있으면서 친목계 사업으로 가을에 쌀이 쌀 때 이를 사다가 봄에 내다 팔기 위해서 쌀을 사두었다. 함양경찰서의 황 형사가 조사한다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빨갱이들에게 쌀을 대주기 위해 사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고문 취조를 하다가 피해자를 그 날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 같이 잡혀 갔던 노상업은 살아 나왔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함양경찰서가 발각 뒤집히면서

등이 대부분이다.

4. 좌익세력과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빨치산과 지방좌익으로부터 함양군민들이 희생당한 경우가 많았으며, 인민군이 주둔하던 2개월간의 희생도 인민군이 직접 학살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⁸³⁾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 인민군의 의용군에 입대한 뒤 행방불명된 것이다. 의용군 입대자 중에는 자의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을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예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선정돼 어쩔 수 없이 간 경우였다.⁸⁴⁾ 그 중 상당수는 이후 인민군 후퇴시 탈출해 돌아왔으나 끝내 행방불명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⁸⁵⁾

빨치산에 의한 학살 중 대표적인 사례는 1951년 9월 2일부터 나흘간 벌어진 ‘9.2사건’이었다. 빨치산과 마천지서 경찰 및 의용특공대의 대충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 마천면 삼정리에서는 면소재지가 빨치산에 의해 점령당해 마을사람 7명이 삼정리 하정마을 앞 돌팀이(하정솔숲, 선유정)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다.⁸⁶⁾

‘애매하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많이 풀려나오기도 했다.”(정덕현(70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9.17).

83) 좌익세력과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상황은,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131~143쪽에서 알 수 있다.

84) “김용만은 6.25전쟁시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의용군 1기생으로 갔다가 인민군 후퇴시 잠시 집에 들렀다가 인민군을 따라가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당시에 마을에서 아무도 의용군에 지원하지 않자 ‘제비뽑기’로 의용군에 갈 사람을 정했다.”(박숙현(73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0.25).

85) “피해자 정근석은 내곡마을 사람인데 6.25전쟁 당시에는 전라도 ‘웅봉’에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의용군으로 가서 행방불명되었다.”(박숙현(73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0.25).

86) “김낙진은 당시 국민운동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1952년 음력 8월 4일 경 나흘간의 공방 끝에 면소재지를 점령한 빨치산에 의해 이상용, 김영수, 심봉근, 최성식, 박재천, 최대진 등 6명과 함께 붙잡혀 삼정리 하정

1950년 9월 인민군 퇴각 당시 우익인사와 경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서하면 다곡리 대항마을 대항재⁸⁷⁾와 서상면 육십령에서 희생됐다. 인민군에 의한 대표적인 학살이다. 인민군들은 점령기에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등 소위 반동분자를 전주, 함양을 비롯해 진주, 남해, 거제, 고성, 삼천포 등지에서 색출하여 진주형무소에 수감했다.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 후 후퇴하면서 9월 25일 수감되어 있던 우익인사들 최소 250여 명에서 300여 명을 트럭에 싣고 대항재에서 집단학살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좌익사건실록』 11권(240쪽)에는 진주시 내무서에 구속되어 있던 정봉권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납치되어 북행하던 중 함양 대항산에 이르러 총살형에 처해졌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나 진주에 돌아왔고, 진주지청 검사였던 문병무는 함양 육십령 고개에서 즉결처형됐다는 내용이 있다.⁸⁸⁾

이밖에도 우익인사나 경찰 끄나풀로 지목된 밀고자 등이 빨치산의 습격이나 보복에 의해 개별적으로 희생당한 경우도 많았다. 서상면

마을 앞 돌담이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다.”(김기태(76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9.23).

87) “마을의 대한청년단 단장과 마을 구장을 하던 전만식은 인민군 점령기에 반동분자로 몰려 전태식(형, 봉전마을), 전병화(큰아들, 다곡마을), 전병양(둘째아들, 다곡마을)과 함께 끌려갔는데, 전만식과 전태식은 철사줄로 묶여 인민재판을 받기 위해 진주형무소로 끌려갔고, 전병화와 전병양은 함양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고 다급해진 인민군들은 1950년 음력 8월 14일 진주형무소에 수감된 우익인사 및 그 가족들(약 250~300명)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로 끌고 가서 집단학살하였다. 대항마을에서는 총소리가 마치 콩볶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한다. 그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남해의 김○○(진주형무소에서 전만식, 전태식과 한 방에서 지냄. 당시 증언자의 집에서 20여일 요양한 후 떠남.)와 대항마을 주민들이 알려줘서 당숙 및 집안 어른들이 학살 장소에서 시신을 운구하여 다곡리 뒷산에 안장하였다. 전병화와 전병양은 함양읍민들이 잠겨있는 문을 부숴져서 도주하다가 인민군에 붙잡혀 지리산까지 부역을 한 후 3일만에 집으로 돌아왔다.”(전병학(71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1.10).

88)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1950년 진주』, 366쪽.

대로마을의 경우 1951년 5월 20일(음력 4월 15일) 빨치산이 이 마을 청년방위대로부터 수류탄 투척을 받은 데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을 습격, 서태식(1937년생)씨의 조부 서기진을 권총으로 학살하는 등 마을 주민 10여 명을 살해했다. 이날 서태식씨의 조모 윤왕암도 불이난 집에서 미처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서태식씨는 고종 형님인 한재복이 당시 외갓집인 자기 집에 머물면서 청년대장을 하는 등 빨치산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에 반동의 집안으로 몰린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⁸⁹⁾

5. 기타 희생 사례

위에 언급된 사례들 외에 1950년 9월 말 인민군 후퇴 및 유엔군 추격 시기에 미군의 오인사격⁹⁰⁾이나 폭격⁹¹⁾, 피난민 총살사건⁹²⁾으로

89) “당시 향토방위대를 하면서 파출소에서 수류탄을 나눠줘서 빨치산들이 오면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자 51년 음력 4월 15일 빨갱이들의 습격이 있었는데 김종근, 서용진, 서희관, 서기진, 윤왕암, 김청이 모친, 서영자 모친, 서영자 모친의 갓난 아기, 김명곤, 조산에서 고용살이 온 사람 등이 총살을 당했다. 젊은 사람들은 수류탄을 던진데 대한 보복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피하지 못해 당한 것이다. 20가구에 불을 질렀다.”(서태식(72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2.7).

90) “추석무렵 수동쪽으로 가는 길에 물방아실이 있는데 논두렁에 풀이 많이 있어서 풀을 베고 있는데 아군이 올라오고 있었다. 미군이 탱크를 몰로 올라오는데 논에서 사람이 풀을 베고 있는 것을 빨갱이들이 잠복하고 있는 줄 알고 총을 쏘아 죽였다. 그걸 본 서준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려고 가다가 또 미군에게 총살을 당했다.”(서순석(79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2.10).

91) “신영우는 6.25 전에 경찰관을 하다가 6.25 무렵에는 한청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할 당시 밤에 동네 앞 술집(주인여자 한복덕, 한복디기)에서 잠을 자던 중 불을 끄지 않아 그것을 보고 미군이 떨어뜨린 폭탄 때문에 집이 무너져 대들보가 목을 누르는 바람에 죽음을 당한 사건. 여자는 다행히 방 구석에 있어서 목숨을 건졌다.”(정식언(75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8.28~29).

92) “인민군이 밀고 내려올 당시 척지마을 사람들은 인근 산 너머로 피난을

목숨을 잃은 경우들도 나타났다. 유림면 웅평리 서준석(1905년생), 서재석(1916년생)의 사례가 오인 사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추석 무렵 둘이 수동면 들녘의 논두렁에서 소꼴을 베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군들이 벚는 사이로 사람의 머리가 올라오자 적으로 오인하여 서재석을 사살했다. 여기서 도망쳐온 서준석이 마을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린 후 서재석의 상황을 살피러 다시 가던 중 역시 미군의 총격에 숨진 것이다. 이 외의 미군에 의한 희생은 대부분 폭격에 따른 희생이었다.

아군의 수복 후 부역자에 대한 처벌도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군경의 빨치산 토벌과정의 희생과 겹치는 것들이다. 즉 군경토벌부대가 부역 혐의 및 빨치산과 내통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곳곳에서 재판 없이 총살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⁹³⁾

갔는데, 마을 사람 3명(홍순홍, 천운철, 성명미상)은 좀 늦게 피난을 가다가 아군(미군과 합동)에 잡혔는데 홍순홍, 천운철 두 사람은 ‘도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마을 앞 들에서 총살당했다.”(홍순용(82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9.26).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130~131쪽에 서술되어 있다.

- 93) “권영수는 당시 면소재지였던 대포마을의 휴천지서 옆에 거주하던 자로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약국어른’으로 불리며 신망이 높았던 유지였는데, 6.25가 나기 훨씬 전부터 억울하게 지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서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변호를 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나, 1950년 음력 10월 14일 군인들에 의해 부역 혐의로 붙잡혀 간 후 유림면 서주리에서 사망하였다.”(김을문(76세)의 증언. 조사일자 2008.12.7).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 143~144쪽).

IV. 함양지역 희생자 현황분석⁹⁴⁾

함양군 희생자현황조사 집계표

사건 유형별 희생자 현황(명)															
구분	계	보도연맹	부역협외	군경토벌	형무소	미군사건	여순사건	대구10.1사건	국민방위군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개별사건	월북	기타
총 계	930	100	29	301	29	18	0	0	0	118	26	191	17	1	100
마천면	145	7	8	19	21	0	0	0	0	2	3	64	1	0	20
백전면	64	7	0	33	0	0	0	0	0	7	0	12	3	0	2
병곡면	68	20	1	12	1	0	0	0	0	21	1	4	2	0	6
서상면	64	7	1	12	0	0	0	0	0	2	3	39	0	0	0
서하면	63	4	0	17	1	0	0	0	0	14	2	12	0	1	12
수동면	86	6	0	56	1	8	0	0	0	7	0	2	0	0	6
안의면	99	2	0	41	3	1	0	0	0	9	6	21	0	0	16
유림면	86	8	1	42	0	2	0	0	0	19	0	8	1	0	5
지곡면	55	12	4	20	0	0	0	0	0	8	3	7	1	0	0
함양읍	121	18	3	30	0	7	0	0	0	26	2	3	9	0	23
휴천면	79	9	11	19	2	0	0	0	0	3	6	19	0	0	10
비고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제외 * 진실위 접수자 포함														

1. 인구학적 분석

함양군의 민간인 희생 규모는 93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 수와 ‘창원대학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희생자 함양조사단’에 의한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희생자 수를 합한 숫자이다. 물론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례와 현장조사의 사례와 겹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이미 특별법에 의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 중인, 국군 11사단 9연대가 저지른

94) 『전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경남함양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산청함양거창사건의 희생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숫자를 포함하면 1천여 명이 훌쩍 넘는 엄청난 희생 규모가 되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희생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체 희생자들의 성별은 남자 871명(93.7%), 여자 48(5.2%), 미상 11명(1.2%)였다. 절대 다수가 남자다. 여자의 경우 실제 희생을 입었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조사된 수치보다는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희생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0대이하 5명(0.5%), 10대 70명(7.5), 20대 530명(57.0%), 30대 157명(16.9%), 40대 56명(6.0%), 50대 39명(4.2%), 60대 이상이 19명(2.0%), 미상이 54명(5.8%)였다. 희생자의 74% 정도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가 20~30대 청년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10대 미만의 아이들과 60대 이상의 노인층도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차별적인 살상이 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희생자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761명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77%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함양군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이자 산간지역이라서 타 지역에 비해 농업 인구의 비율은 더 높았을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결국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20~30대 남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별 분석

함양군 읍면의 지역별 희생자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함양군은 1개 읍,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50년 당시에는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57년에 함양면과 석복면이 합해져 읍으로 승격하였고 안의면의 경우에도 거창군과 행정 구역 조정이 있었다.

현재의 행정구역대로 지역을 나뉘어 살펴보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마천면으로 145명(15.6%), 다음으로 함양읍이 120명

(12.9%), 안의면이 99명(10.6%)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천면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리산으로 올라간 반란군이 두 달 후인 12월 19일 마천면에 들어와 백무동 일대에 주둔했다. 그 후 필요할 때 보급투쟁을 하기 위해 내려왔고, 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3연대와 15연대 등이 마천으로 들어왔다. 이 때문에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빨치산들이 강청리 일대에 주둔해 있음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나 군인들로부터 아예 빨갱이 협력자로 낙인이 찍혀 그 어떤 지역 주민들보다 희생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마을 경비대로 특공대로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했던 마을 주민들이 빨치산에 의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함양읍의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가 있던 함양면과 이웃한 석복면이 합해진 지역이다. 함양읍 지역의 경우에는 군청, 경찰서, 군부대, 학교 등 관공서와 시장이 있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보도연맹 관련 등의 희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숫자가 파악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 이동이 심해지고 읍내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적어서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적은 숫자만이 파악된 때문이라고 보인다.

안의면, 수동면, 유림면의 경우에는 빨치산 활동에 따른 군경토벌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등의 경우에도 희생의 대부분이 빨치산과 연관된 군경토벌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시기별 분석

1949년까지가 220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48년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이 활동하고 군경토벌 작전이 진행되면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 1월~9월

사이가 359명으로 38.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1950년이라고만 조사된 인원인 88명(9.5%)이어서 거의 50% 정도가,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터지고 난 뒤 보도연맹 학살사건이 발생하고 인민군이 함양에 들어온 7월 말부터 인민군이 후퇴하는 9월 말까지의 시기에 발생한 희생이다. 다음으로는 인민군이 패퇴하고 난 뒤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등지를 중심으로 빨치산 활동과 토벌작전이 본격화되던 1951년 이후가 212명(22.8%)이다. 1952년 이후로 넘어가면 토벌작전으로 빨치산이 괴멸되어가면서 그에 따라 희생자의 규모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4. 희생유형별 분석 및 가해자 분석

희생유형과 희생형태 및 가해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번 조사결과를 희생유형을 보면 전체 희생자 930명 중에서 32.7%인 304명이 군경도별로 인해 희생된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빨치산에 의한 희생이 192명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고, 인민군에 의한 희생이 117명(12.6%), 기타사건이 10.9%, 보도연맹사건 98명(1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여 빨치산 활동과 군경도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민군에 의한 희생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인민군 정규군이 이들 모두를 학살한 숫자는 아니다. 즉 대황재, 육십령 등지에서의 서부경남 우익인사 집단학살 사례로 조사된 것은 소수이고 상당수는 인민군 의용군에 따라가 행방불명된 경우일 것이다. 기타사건의 경우에도 101명으로 10%가 넘는데 이는 대부분 전쟁 전에 좌익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체포를 희생 도피나 입산하는 등의 이유로 행방불명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희생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총살이 459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행방불명이 310명(33.3%)이다. 희생자의 거의 대부분은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별 분류를 살펴보면, 246명(26.5%)이 경찰에 의한 희생이며, 빨치산에 의한 희생이 203(21.8%)이다. 군인에 의한 희생이 154명(16.6%), 인민군에 의한 희생이 116명(12.5%)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증언에 의존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증언자들이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증언자들이 대부분 당시 어릴 때라 가해자가 경찰인지 군인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빨치산인지 지방좌익인지 인민군인지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V. 결론-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의 원인과 지역적 특성

1. 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의 원인

한국전쟁 중 함양군에서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역은 689명이었다.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 희생자수를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일제시기인 1932년의 인구는 조선인만 76,401명이었고,⁹⁵⁾ 한국전쟁전인 1949년에는 102,184명, 전쟁후인 1953년에는 98,784명, 1955년에는 99,408이었다.⁹⁶⁾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무려 3,400명이 줄어든 데에는 학살된 민간인의 수도 포함되었겠지만, 빨치산의 잦은 출몰과 토벌과정에서 벌어진 희생과 공포를 희생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군민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93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 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희생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이미 위령사업이 진행 중인 산청·함양학살사건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같은 희생규모 추정으로 볼 때 1953년까지 줄

95) 『부산일보』 1932. 4. 15.

96) 『함양군지』, (1991).

어든 3400명 중 절반이 절반 정도는 학살의 공포를 희생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로 풀이된다.

함양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첫째, 함양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그 이유였다. 함양은 지리산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거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함양지역은 말 그대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었던 것이다.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빨갱이에 동조했다는 이유, 빨갱이라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둘째,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 까지 빨치산에 대한 토벌이 매우 강고하게 진행된 결과였다. 1948년 말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 반란군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빨치산 활동을 시작하자, 당시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3연대 제3대대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군 일대와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산간마을을 소개(疏開)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통비분자, 빨갱이 등으로 몰려 희생당했다. 산간마을 주민들이 빨치산의 협조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인 상황에서 무장한 빨치산이 나타나 식량과 의복을 요구하고 짐을 저다 줄 것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참전군경조차도 잘 알고 있었다. 즉 당시 의용경찰특공대는 물론 정식 경찰관 생활까지 했던 증언자들까지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경찰과 군인이 관제 빨갱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군경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밤에 빨치산이 마을에 들어와 총을 들이대면 밥을 해주거나 양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빨치산과 내통했거나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구타와 고문을 가하는 바람에 그런 군경에 복수하기 위해서 실제 빨치산으로 입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즉 한국전쟁 전 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산간마을을 빨치산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국군과 경찰의 산간마을 소개와 빨치산, 민간인 분리작전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도 빨치산에 대한 토벌은 계속되었고, 그 방법도 매우 잔인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 패잔병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잔류빨치산들과 합류하여 비정규전 태세를 갖추고 활동을 개시했다. 1950년 11월 말경에는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될 정도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3군단이 1950년 10월 15일 후방 치안유지를 위해서 창설되었다. 예하에 2, 5, 9, 11사단이 배속되었고, 제11사단에는 제9연대, 제13연대, 제20연대가 배속되었다. 11사단은 남원에 사단본부를 진주에 9연대, 전주에 13연대, 광주에 20연대를 주둔시켰다. 이들 연대가 후방 빨치산 토벌에 가담하면서 관할 지역 민간인 희생은 막대하였다. 특히 9연대와 20연대 지역에서 빈발하였다. 이 11사단이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함양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전쟁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다. 1948년 여순사건부터 한국전쟁기간까지, 그리고 빨치산 소탕이 거의 완료되는 1954년까지였다. 그 때까지도 지리산 자락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거창에서 지리산 공비토벌이 완료되었음을 축하하는 지리산 평화제가 거행된 것은 1956년 4월 9일이었다.⁹⁷⁾ 어쩌면 마지막 빨치산 2명(정순덕, 이흥희)이 산청군 삼장면에서 63년 11월 18일 체포될 때까지 전쟁 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2. 민간인 희생의 지역적 특성

함양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7) 김병찬·정정길 공편, 『50년대 지방자치: 지방행정과 의회활동의 실태와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134~135쪽;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4), 265쪽에서 재인용.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이다. 전자는 해방공간의 좌익세력 탄압,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토벌과정의 민간인 학살, 빨치산·지방좌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다. 후자는 한국전쟁 이후 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 미군관련사건, 인민군·지방좌익·빨치산에 의한 사건, 부역혐의, 6.25전쟁 이후 군경토벌 관련 사건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볼 때 함양지역의 사건 양상은 보도연맹 98건(10.5%), 부역혐의 27건(2.9%), 군경토벌 304건(32.7%), 형무소사건 29건(3.1%), 미군사건 18건(1.9%), 인민군에 의한 사건 117건(12.6%), 지방좌익에 의한 사건 27건(2.9%), 빨치산에 의한 사건 192건(20.6%) 이외에 개별사건, 기타사건, 자진 월북 등이다.

인민군에 의한 희생이 무려 12.6%에 이르는 것은 대부분 의용군에 입대했다가 행방불명된 경우였다. 학살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포괄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함양지역에서는 보도연맹건이 10.5%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함양지역의 좌익세력들이 한국전쟁전에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왜냐하면 함양지역은 이미 1948년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좌익세력들이 군경토벌대 등에 의하여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유는 함양에 인민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왔기 때문이었다. 전쟁 중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았던 마산이나 창원, 김해, 부산 등과 달리 함양은 전라도와 인접해있었던 지형적 이유로 경남에서 가장 빨리 인민군이 들어왔던 것이다. 함양에 인민군이 진격한 것은 7월 27일로 진주의 31일보다 나흘이나 빠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거나 처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실제 이로 인해 보도연맹원으로 소집이 되었다가 해산된 사례들도 나타났다.

【Abstract】

Background and Aspect of Civilians Damages in Hamyang Before and After Korea War

Jaewoo Nam || Changwon Univ. History
allakuk@hanmail.net

We find out civilians damages in Hamyang, Kyungnam from liberation in 1945, through Korean War in 1950 to the finishing partisan subjugate in 1954.

Civilians slaughters and damages after liberation are found by a process of partisan subjugate after leftist organizations repress and Yeosun case and also found by partisan and local leftist organizations.

The other damages after Korea War are found in National Guidance Union case, Prison case, event related American army, event related hostile parties like North Korean Peoples Army, local leftist organizations, partisan, collaborationism suspicion, event related military and police subjugate and so on.

Why are those various types of civilians damages found in Hamyang?

First, It is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of Hamyang.

Hamyang is at the foot of baekdudaegan connected by from Mt. Jiri to Mt. deogyu and it has been partisan base before and after Korea War.

Hamyang is literally ‘Republic of Korea in a day, People’s Republic at night’.

On a process of partisan subjugate, many civilians are killed because they sympathize with Reds and they themselves are Reds.

Second, it is results of firm progress of partisan subjugate from Yeosun case to Korea War.

Last, the duration is too long. It is from Yeosun case in 1948 to Korea war, and carry on a war until the partisan is nearly swept in 1954.

Key Words : Yeosun case(여순사건), partisan(빨치산), leftist(좌익), Korea war(한국전쟁), Hamyang(함양), civilians(민간인), Mt. Jiri(지리산)

■ 논문투고일 2009.5.23 ■ 논문심사일 2009.6.25 ■ 게재확정일 2009.6.26